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金 迪教(연구자문위원, 한양대 교수)

얼마전 MIT대학의 서로우(L. Thurow) 교수가 세계경제에 대해 명강의를 하고 돌아왔다. 그는 지질학의 地板구조론과 생물학의 突變均衡論을 이용하여 오늘날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모색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예측불가능한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재앙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多極化시대를 맞이하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앞날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나, Thurow 교수가 경제이론보다는 지질학과 생물학의 이론을 원용해서 경제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는 세계경제의 어두운 측면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어디선가 곧 좌초하고 말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세계경제에 대한 불길한 전망은 막연하나마 불안감을 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미·일간의 무역불균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불균형(international imbalance)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불균형은 미국경제의 상대적 하락에 따른 패권국가의 부재, 자유무역질서의 쇠퇴와 지역주의의 등장 및 환율제도의 국제수지조정 메카니즘으로서의 기능상실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불균형을 조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쉽게, 또 가까운 시일안에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있어서는 세계경제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Thurow 교수의 주장은 정곡을 찌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박빙위를 걷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경제성장이나

무역신장면에서 계속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증가가 1960년대 보다는 1970년대가 못하고, 1970년대 보다는 1980년대가 못하며, 1990년대에 와서도 계속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1> 세계 GDP 및 무역증가율 추이

(단위 :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¹⁾
실질GDP	5.0	3.9	3.1	2.5
세계교역 ²⁾	7.8	6.6	4.1	5.2

주 : 1) 1993년까지임. 2) 물량기준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세계경제가 그야말로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 추세가 반전될 것인지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경제는 여러개의 장기순환(long wave)을 거치면서 성장하여 왔다. 경제의 침체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의 내부적 요인, 예컨대 기술혁신이나 상대가격의 변화 등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의 動因이 형성되어 경기는 다시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순환이론에 입각해서 세계경제는 1990년대 후반을 전후해서 상승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Rostow 1980; Mensch 1979).

이러한 장기순환이론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경제의 앞날은 반드시 불안한 것만은 아니며 고무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첫째 이유는 WTO체제의 탄생으로 자유무역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WTO체제가 정착되어 자유무역질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선진국들의 독자적인 통상정책의 추진에 따른 쌍무적 통상마찰이나 국제통화제도의 불안 등이 세계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WTO체제는 세계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구촌화(globalization)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은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의 이동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어떤 물건이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는 세계경제의 자유화 추세에 편승함으로써 세계경제 성장과 무역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이 21세기 초에는 실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1세기를 주도할 첨단기술 중 단연 선두주자로 인정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인 발달은 21세기 초까지 실용화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분야의 신기술제품은 정보통신시장 자체의 창출 외에도 기존산업의 정보화, 예컨대 생산공정의 자동화,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산업 및 세계

무역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까지 실용화되어 미래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서 단연 정보통신기술을 들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 분야의 화상전화, 고화질 TV와 같은 첨단기술들은 이미 실용화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소재,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첨단기술들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점들이 많아 정보통신기술보다는 다소 늦은 2010년대 이후에나 실용화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첨단기술은 다소의 시차는 있으나 다발적으로 실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이 세계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밝은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고무적이라 해서 세계경제가 순항을 할 것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계경제는 지금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어디에서 화산폭발과 같은 충격이 있을 것인지 이를 전연 배제하기가 어렵다. 가령 Thurow교수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일본기업에 대해서 미국시장 상륙에 대한 입장권을 파는 형식의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협상이나 위협의 수단은 될 망정 미국이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Thurow 교수의 위기론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에는 자국의 국제수지문제에 대한 두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하나는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으로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소비지출을 줄임으로써 거시경제적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는 고통분담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적 무역정책을 주장하는 극단론이다.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무역수지문제는 일본과의 문제인데, 일본과의 무역적자 해결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격한 수단, 예컨대 자국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쓰든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urow 교수는 후자에 속하는 학자중의 하나로 분류된다(P. Krugman 1992). 이들은 오늘날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불균형문제의 원인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옳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짐을 일본에만 떠맡긴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多極化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경제관계는 경제대국간의 이해상충때문에 정책협조가 쉽지 않고 그만큼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 大亂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강한 국제경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일방적인 경제적 승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달러화가치 하락을 방관하고 있는 것도 미·일간의 직접적인 무역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이며, 그 대신 환율조정을 통해서 일본경제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이미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이 오늘날의 국제경제관계는 마찰과 갈등 속에서도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

은 나라는 국제경제의 亂氣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제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축률을 높임으로써 해외자본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이는 등 경제의 근본(fundamentals)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Thurow 교수의 권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참고문헌

1. Mensch, G.(1979), *Stalemate In Technology : Innovations Overcome The Depression*, Cambridge, Mass.
2. Rostow, W.W.(1980), *Why The Poor Get Richer And The Rich Slow Down*,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3. Krugman, P.(1992),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1958)	국제경제학회 회장(1986)
미국 밴더빌트大 경제학 석사(1961)	한양대학교 교수(1982~현재)
서독 보쿰大 경제학 박사(1970)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1988~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부장(1971~7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1989~92)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1979~81)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장(1995~)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